

국내 양계장 방역실태와 개선점

집단 방역 인식 아직도 부족하다

김 재 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 과장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간다면 이들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근절되기는 커녕 새로운 변이형에 의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방역통제가 불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오리나 야생조류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가 다수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으로 질병을 제압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예방접종 외에는 대안이 없어 지역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계속적인 인체감염과 사

망 사례가 보도되고 있고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태국은 세계적인 가금육 수출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정책과 함께 백신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조기 근절을 위하여 백신을 몰래 접종하는 농가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까지 물리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국가적인 박멸이 매우 어려워 태국산 가금육의 수출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곧 백신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여행객 또는 축산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모든 가금산물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하여 국내로 재유입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의 특성상 철새에 의한 유입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방역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국내 양계장 방역실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12월에 H5N1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국제사회에 최초로 보고하기 6개 월여 전인 2003년 7월 이후부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 병이 발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동남아국가와 중국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병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소문을 확인해 준 셈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기까지 방역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감염계 및 감염지역의 이동통제 미준수, 방사계군과 계사내 사육계군의 혼재로 인한 용이한 전염, 난좌의 재사용과 집란장을 통한 재유통, 1일령 초생추 및 생계의 매매와 교류장소의 밀집, 조류 분변에 오염된 물의 급수, 농장 방문객 및 방문차량의 자유로운 출입 및 차단방역 미실시 등을 주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중 마지막 사항은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경남 양산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집단적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가장 마지막에 재입식 허가가 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 지역 협업단지 내 대부분의 계군을 살처분 매몰한 후 2개 월 이상을 청소하고 소독하여 다른 질병까지 거의 청정화된 상태에서 계군이 재입식되었다. 그러나 채 얼마 되지 않아 단지 내에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이 있음을 보고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얼마나 방역에 취약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한들 금방 질병의 온상이 되어 버리는 현실은 우리 양계업계 방역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 같다.

2. 국내 양계장의 방역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

많은 부분이 있겠으나 지면관계상 양계 현장에서 가장 소홀한 핵심적인 문제만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농장의 차단방역 부재

양계장 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일단 전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농장 사장이나 가족 및 관리인도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이다. 불가피하게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확실한 소독제로 완전히 소독한 후 들이도록 한다. 계분차량, 닭 또는 계란 수송차량, 사료 운반차량 등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 차단방역이 없이 질병을 방역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2) 계열화 또는 집단생산체계에 따른 집단방역 시스템 부재와 집단방역 인식 부족

무릇, 사람이던 동물이던 집단을 이루면 그만큼 전염병도 많고 전파에 의한 피해도 대량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열화 생산이나 협업생산 등 집단생산체계를 운영하는 주체는 반드시 집단사육체계에 따른 방역상의 취약점

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역전문팀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중오염 또는 순환감염 방지를 위한 동시입식, 동시출하(올인 올아웃)체계 부족

국내 양계장에서는 차단방역 의식과 질병 예방관념이 부족하여 늘 질병이 유입된 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한다. 차단방역이 소홀하면 농장이 여러 병원체로 계속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올인, 올아웃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한 질병은 계속 순환하는 경우가 많다.

4) 계분 처리 시스템 미흡 및 계분 처리차량의 공유

계분 처리차량은 가장 위험한 전염원이다. 절대로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계분차량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완벽한 세차와 철저한 소독이 필수적이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5) 폐계의 방치 및 처리에 대한 무관심

폐계는 전염병으로 죽었을 경우 그것 자체가 전염원이고 계사 주변에 방치할 경우, 파리, 쥐, 곤충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옆 계사로 병을 전염시킨다. 또한 독수리, 까치 등 육식성 야생동물의 출몰을 조장하여 인근 지역으로까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

6) 농장 주변의 야생동물 접근 차단 소홀

조류 인플루엔자나 뉴캐슬병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생동물이 사료나 폐계, 기타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7) 부정확한 백신 접종 실시 및 백신에 대한 과신

8) 사회·경제적 문제

예산 문제로 인한 살처분 보상제도의 불충분으로 뉴캣슬병 등 악성 전염병 발생시 신고에 따른 이동통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 발생을 은폐함으로써 질병 확산 조장

3. 농가에서의 지켜야 할 세부적인 방역 수칙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방역이다. 양계현장의 실질적인 방역활동의 주체는 사육농가이므로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몫임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정부나 협회, 단체의 뜻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염두에 둔 주요 차단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신속한 신고 : 3일 이상 사료섭취량 감소 및 급격한 산란저하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신속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 유리한 양계장 입지 선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호수,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축주 본인도 그런 장소에 최대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의 경우 철저히 손과 신발을 소독한 후 농장내로 들어온다.

- 철저한 차단방역

- 농장이나 축사 출입시 분변 처리 및 운반차량, 오리 출하 및 입식 차량, 기타 사료 및 동물약품 등 관계자의 차량 등과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협용시에는 철저히 소독한다. 가능하면 축사내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난좌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며, 그 외 사양기구 등도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축주 자신이나 가족들도 외출 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독하도록 하고, 다른 양계 농장 또는 오리농장의 방문을 삼가도록 한다.
- 축사 내·외부의 주기적 청소, 소독
-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

- 계사내로 참새, 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사료창고를 만들거나 폐사제나 사료 찌꺼기 등 먹이를 양계장 구내에 방치해 두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덮개를 덮거나 그물을 쳐 두도록 한다.
- 폐사체는 계사 주변에 방치하지 말고 땅에 묻거나 야조나 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폐용기에 담아둔다. 또는 퇴비처리시설에 넣어 퇴비화한다.
- 농장의 구충·구서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토종닭, 오리 등과 같이 방사계군이 있는 곳은 야생조류와 접촉할 우려가 높으므로 그물을 쳐 두거나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병든 닭이나 오리 또는 의심축의 이동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 최대한 동시입식, 동시출하(올인 올아웃) 형태의 입식관리를 한다. 